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 오늘의 전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루카 13,1-9 참조)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죄벌을 받았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남보다 죄가 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 찾기는 참 잘 하지만,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생각은 드물게 합니다. 회개합시다.

제1독서 탈출 3,1-8ㄷ.13-15 **제2독서** 1코린 10,1-6.10-12 **복음** 루카 13,1-9.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시대의 징표를 읽기



최호 요한보스코 신부 | 용성분당 주임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을 봤었다. 그 때 마지막으로 “어떤 신부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난 “신자들과 함께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었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원장 신부님께 “어떤 신부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되었다. 그 때 난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아는 사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었다. 하느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참 빨리 가서 10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사제로서 익숙해진 것들도 많이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대의 징표에 대한 일이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내 판단이 너무 앞서 버렸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먼저가 되고 있다. 시대의 징표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읽기보다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었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사람이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판단중지(epoche)와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했다. 나는 특히 판단중지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을 가장 방해한 것이 앞선 판단이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판단이 앞선 사람들에게 갈릴래아 사람들의 변, 실로암 탑에 깔려죽은 열여덟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다. 누가 더 잘했고 잘못 했는지를 판단하는 일보다 그 일을 통해 시대의 징표, 하느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징표를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주신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를 회개어로 초대하신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당신 용서를 체험하게 하신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뵈고 말씀을 듣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말이다. 사실 시대의 징표를 읽어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 일은 한 사제의 목표만은 아닐 것이다. **필문**



베드로의 후계자를 위해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이미 많은 교우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지난 2월 11일 사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성하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양심을 돌아보시고 베드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육간의 힘이 쇠진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당신의 결정이 어떠한 강요도 없이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오는 2월 28일 퇴임하시게 되며, 그 후 새 교황님이 나실 때까지 사도좌는 공석이 됩니다. 3월에는 새 교황님을 뽑는 추기경단의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부활절 전에 새 교황님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교황님의 사임 발표에 놀랐습니다. 이제껏 생존해 계시면서 베드로 좌에서 물러나신 교황님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자진해서 퇴임하신 경우는 매우 드물고, 더구나 근세 사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이처럼 퇴임을 결정하신 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하고 있는 교회의 앞날을 마음 깊이 염려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숙고하신 끝에 큰 용기와 겸손으로 내리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어깨에 메워 있는 짐의 무게를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교회를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세우신 바오로

사도께서는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갈라 6,2)하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러나시는 교황님과 이제 곧 그 십자가를 물려받게 될 새 교황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요긴한 한 가지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크든 작든 사람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온 세상의 하느님 백성을 두루 돌보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는 오직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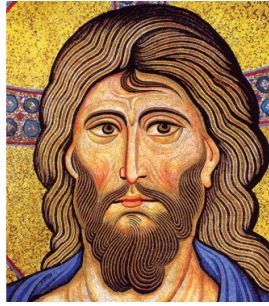
주님께서 손수 베드로의 후계자로 뽑으신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시며, 그의 노고를 지상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 주시도록 청합시다. 또한 당신의 양떼를 위해 의롭고 거룩한 목자를 새로이 세워 주시고, 그에게 성덕과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울러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새 교황 선출을 위해 모일 추기경님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구하면,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요한 16,24)하신 분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2013. 2. 22.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큰 영광과 타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문화홍보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마도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불안한 인생살이에 어딘가 의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더 깊은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고 못 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른 듣기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에 이어지는 말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도 그렇게 하지만 신경을 바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평생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자식이 혹시 못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

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속을 태워도 부모에게는 돌도 없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자식 사랑을 멀리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참으로 무엇이든 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물속에도 뛰어 들고, 불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 주시려고 몸소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고, 죽을 죄를 지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저주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도,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신경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능력인 줄 착각하지만, 불가능을 모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필문**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쉬운 건 어릴 적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나를 낳았던 그 여자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분할 뿐이다!” 소위 ‘지존파’로 전국은 물론 해외뉴스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살인마는 체포 되자마자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누이 둘만 어렵게 살아가다 결혼 한 누나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 연락이 끊긴 사이 동생은 너무도 변해 사람을 생매장하고 인육까지 먹는 상상도 못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잡힌 걸 알게 된 누나는 그 길로 성당으로 달려가 피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지은 죄는 죽어서도 못 갚겠지만, 단 한 가지 동생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나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어느 수녀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세례를 받은 그 동생에게 수녀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체를 영한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속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누나가 담근 김치를 한번만 먹어 보고 싶습니다.” 누나가 보내준 김치와 함께 밥을 먹는 동생에게 수녀님은 다시 한 번 성체를 영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봇물 같은 오열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인생에서 맛본 단 하나의 사랑은 엄마 역할을 했던 누나의 김치였습니다. 흉악범인 그에게도 사랑의 기억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내 죄 값은 다 못 갚겠지만 내 눈이라도 내놓고 조금이라도 죄 값을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은 날 누나는 피범벅 된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루카 6,37) 큰 죄인일수록 회개하면 더 뚜렷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

금주의 성인



천주의 성 요한(3월 8일)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 하여 천주의 요한(1495~1550)이라 불리운 성인의 원래 이름은 <요한 시데다> 이시다.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신 성인께서는 목동, 군인, 책장수 등의 직업을 가졌다가 아빌라의 요한 성인의 강론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남은 여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병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시고 의료봉사회를 설립하셨는데 성인께서 선종하신 후 제자들에 의해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로 설립되었다. 성인께서는

1690년 알렉산데르 8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시고 병원, 병자, 간호사, 소방관, 알코올 중독자, 책 판매상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 2013년 상반기 교구 사제연수



2013년 상반기 교구 사제연수가 2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사제연수는 쉬는 교우 회두운동 사례발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 20년간 이웃사랑 실천한 이규원·정유주씨 부부에 감사패 전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여 년간 한결같이 이웃사랑 실천에 헌신해 온 이규원(제일안과병원 원장)·정유주(정약국 대표)씨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셨다. 비신자인 이규원·정유주씨 부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일신문의 <이웃사랑> 코너에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50만 원, 100만 원씩 성금을 보냈다.

■ 정은규(시몬) 몬시뇰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대구대교구 원로사제이신 정은규(시몬) 몬시뇰(80)께서는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시어 2월 21일(목)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다.



■ 2대리구 상담소 '소람(소중한 사람)'을 알립니다! ■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에 2대리구에서는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 상처와 치유, 신경증적 증상 등의 각종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적절하게 돕고자 '소람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상담업무 4월 15일(월)부터 월~금(10:00~17:00), 토(10:00~13:00)

장소 2대리구청 가정담당 사무실 **담당** 김종섭 토마 신부

문의 2대리구청 사무실 743-7010 / kim-sinbu@hanmail.net

(전화 상담을 먼저 하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경력이 있으신 재능 기부 상담봉사자를 모집합니다.(자기소개서 지참)

남의 일이 아니야

박성규 엘리저오



미사안내

-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 *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4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 3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3월 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성당
- *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3월 9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3.10(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외방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문의: (010)9319-1690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3.9(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코눔
 문의: 632-9800 / (010)3440-0304

12차 MR 피정(성경묵상 프로그램)

기간: 3.23(토)~24(일), 한티
 대상: ME주말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대구ME 983-0521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

일시: 3.9(토) 10:00, 다사성당
 주제: 마리아와 요셉께 배우는 부부일치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산내 치유 피정

기간: 3.19(화)~20(수) / 매월 셋째주
 내용: 정기모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교

받는 상처의 치유 시간(선착순 9명)
 문의: 동천성당 사무실 326-5004

제7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3.15(금) 22:00~17(일) 15:00
 준비물: 필기, 세면, 미사도구 준비
 문의: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 집
 (055)382-9465~6 / 전화접수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기간: 3.28(목) 15:30~ 31(일) 13:30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13만 원
 문의: (054)971-0722

까리따스수녀회 성경 통독 피정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0:00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제주 자연 피정

일시: 3.10(일)~13(수), 3.19(화)~22(금)
 4.1(월)~4(목), 4.6(토)~9(화)
 4.16(화)~19(금), 4.22(월)~24(수)
 5.4(토)~7(화), 5.14(화)~17(금)
 문의: 성 이시돌 (02)773-1455

교육 | 모집

사순시기 이태리성물 은제품 특가판매

기간: 2.13(수)~3.31(일)
 주관: 성바오로서원(남산동)
 문의: 256-4592

대가대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 2.18(월)~, 개강: 3.4(월)~
 과정: 학점은행(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취미자격, 음악1:1레슨, 성가 교실, 장수건강대학, 노래교실 등
 문의: 660-5554~7

17기 외식 CEO 연구과정 모집

개강: 3.5(화) 10:30, 감삼캠퍼스
 1년 2학기, 매주(화) 10:00~17:00 중식제공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창업예정자
 문의: 대가대 보건의료과학대학원
 850-3177 www.oesikceo.com

가톨릭상지대학 원격평생교육원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 온라인 과정
 개강: 3.7(목),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www.cec.or.kr

Yi Sang Doe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타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익현(안드레아)

유방 감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하지 않습니다!

(주)분도 축복을전하는사람들
 본도석유 / 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새마을사회복지기업 대표 김 현 철(베네딕도)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법원방향
 코리아 알트만
 -빙어R-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교육 | 모집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기부 특강

내용: 자녀교육을 위한 주제별 특강
(공문 천대교 2012-0125 참고)

대상: 본당 단체(자모회 등)

유치원(학부모 대상)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틴스타 교육생 모집

기간: 3.16(토)부터 12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내용: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청소년 성교육

대상: 중2-3학년, 고1-2학년

문의: 한국틴스타대구지부 250-3037

예로니모 성경대학 2013년 불학기

기간: 3~5월 매주 목요일, 동춘성당

14:00~16:00 / 20:00~21:30

내용: 예수어록, 마태오복음

루카복음, 사도행전

강사: 박영식(야고보) 신부

2대리구청 상담소 상담봉사자 모집

2대리구 상담소 소람(소중한 사람)에서
상담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상담 경력자, 해당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문의: 743-7801

kim-sinbu@hanmail.net

2013년도 1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영성신학, 윤리신학2, 교회법, 교회론

계시현장, 교회현장, 전례봉사자교육,

생태영성, 신약-구약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3.16(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대중문화와 성교육 / 5천 원

강사: 이광호(베네딕토)교수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수도자와 평신도를 위한 전례음악 연주

기간: 3.11(월)~13(수)

지도: 김종현 신부, 김정선 수녀

문의: 한티 피정의 집

(054)975-5151 / (010)5442-6112

시편성가, 발성법 연주

일시: 3.3(일) 15:00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 연수

3차: 3.30(토) 출발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성가 지휘 아카데미 모집

일시: 3.10(일), 14:00, 20명 제한

강사: 황해량(시향 전임지휘자)

신청: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9~6.11 (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 교육원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모집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안내

교구 사목국 홈페이지 이전 안내

교구 사목국 홈페이지가 다음 카페
로 이전 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dgsamok>

문의: 250-305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주보 편집실 전화번호 변경 안내

대구주보 편집실 전화번호가

(053)250-3048~9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구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골프클럽 피팅·수리
● 동대구 골프 프라자(MBC 뒤)
● 월드피아 연습장 내
우리골프(시지 덕원고 입구)
053)752-6556, 791-6554
이 응 래(가브리엘)

나가사키성지순례
제2차 **4월04일~07일(3박4일)**
제3차 **4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내
복현점 : 복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내
(주)한국금은거래소 ☎763-8838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사
현.연세대의과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